

# [제주잠녀] 92. <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63)서귀포시 토평동

느림의 삶에서 '만족'찾는 바다

등록 : 2007년 11월 04일 (일) 13:37:22  
최종수정 : 2007년 11월 04일 (일) 13:37:22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mailto:popmee@jemin.com)

[제주잠녀] 92. <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63)서귀포시 토평동  
느림의 삶에서 '만족'찾는 바다

바다는 적당히 내어주고 또 적당히 거뒀어지는 느림의 삶에서 만족을 찾는다. 그런 바다와 함께 해운 사람들 역시 바다를 닦아간다. 뿌린 만큼 거둔다고들 하지만 지금의 바다는 지켜준 만큼 돌려준다. 두 손을 꼭 채우는 10명의 잠녀가 남아있는 토평 바다는 조금은 쓸쓸하면서도 조금은 넉넉한 이 계절을 닦았다.



**△나누고 또 지키고**=멀리 섬섬이 보이는 토평 바다는 말그대로 고즈넉하다. 금채기가 끝나고 한창 작업중일 거라는 기대와 달리 조용한 바다에는 낚시어선 몇 척만 흰 물결을 만들고 또 없애고 있었다.

올해 10년차 고참 어촌계장인 김상욱 토평동 어촌계장(49)은 “바다는 그냥 내 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50대 2명과 60대 8명, 꼭 10명의 상시 잠녀들이 한해 수확하는 소라는 10t 남짓. 1년에 다섯 번, 많아야 25일 밖에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잠녀 1인당 수확량은 상당하다. 탈의실에 걸려있는 200kg짜리 테왁도 ‘놀랄 노’자인데 여기에 작은 테왁을 묶어가며 작업한다고 했다.

비결은 단순했다. 김 어촌계장은 “관리를 잘하면 된다”는 한마디 말로 정리했다.

‘잔소라는 절대 잡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 하면 먹기 위해 집에 가져가지도 않는다. 소라를 잡는 날은 소라만, 오분자기를 잡는 날은 오분자기만 잡는다. 올해까지 세차례 넘게 전복 종패를 뿌렸지만 벌써 몇 년째 전복 작업은 하지 않았다.

김 어촌계장은 “잠녀 전체 동의를 받아야 작업을 할 수 있다”며 “‘돈’보다는 ‘어장관리’가 중요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한 때문”이라고 말을 이었다.

“잠녀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옛날식 관리는 맞지 않는다”며 “깊은 바다에서 오래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관리해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닥을 조금만 살피면 전복이 보이지만 누구하나 손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노력을 몰라주는 ‘도둑’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양식장에 접근하기 쉬워서인지 여름이면 ‘도둑’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한다. 도둑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아는 얼굴들이어서 처벌이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으로 상처받은 바다와 바다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진다.



▲ 해녀들을 위한 의료용 산소장비



▲ 토평동 수역

**△제대로 관리하는 법 먼저**=토평 바다는 제주도 제1호 유어장 허가를 받았다. 벌써 10년전 일이다.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보다 마을 밖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바다를 관리한다는 자부심이 앞선다.

김 어촌계장은 “유어장으로 지정해 두고 정해진 곳에서만 낚시나 스쿠버다이빙을 하면 소모적인 분쟁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종종 소라껍데기가 잔뜩 싸여있는 등 잠녀와 스쿠버들 간 다툼이 많았던 물속 동굴도 요즘은 아주 깨끗하다”고 말했다.

‘돈을 내고 정당히 즐기라’는 요구가 쉽게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김 어촌계장은 “유어장 허가를 받아줬는데 재정문제 등으로 편의시설을 갖춰놓지 못하다보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며 “마을어장 내 유어장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어장 관리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복 양식 등으로 바다를 묶어두는 대신 토평동 어촌계는 일찌감치 바다 일부를 개방했다. 바닷잡이 체험어장을 운영한 것도 이제 10년이 다 돼간다. 바다에서 양식한 것은 어촌계의 재산이지만 바다는 모두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곳 잠녀들은 12월과 이듬해 1월 거의 작업을 하지 않는다. 거의 감귤 껍질을 하고 있는데다 소라 등 물건 가격도 예년만 못해서다.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는 잠녀들에 대한 대책 역시 아직 미흡한 상황에 무리하게 바다 작업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마침 토평동어촌계에 의료용 산소장비가 도착했다. 서귀포수협 어촌계장협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요청, 19개 어촌계에 대당 50만원의 장비를 하나씩 갖추기로 했다고 했다.

김 어촌계장은 “작업 중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잠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항이 만들어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관 등으로 바다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잠녀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공동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해가 갈수록 과제는 늘어났지만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래도 바다와 어울리고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작지만 큰 희망이 엿보인다.

<특별취재반=김형훈 문화체육팀장, 김대생 동영상·인터넷팀장, 고미 사회팀 차장, 해녀박물관>

‘밭로 달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서귀포시 서귀동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http://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